

관람자 행태에 의한 미술관 전시공간의 특성 연구

- 전시대상과 전시공간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ttribute of an Art Museum Exhibit Space by a Spectator Behavior

윤재은* / Yoon, Jae-Eun

김주희** / Kim, Joo-Hee

Abstract

The form and function of modern museum present more a variety of aspects in need of transition of the mature civil society and culture than the past. Considering that an art museum is the space where a multitude of unspecified visitors inspect simultaneously, exhibitions and adequate construction make visitors lead to successively visual contact. Consequently a goal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at there is correlation between exhibit space and exhibitions and to suggest an alternative plan at exhibition through relationship among exhibitions, exhibit space and spectators' behavior. Two Art galleries (one is a large-sized gallery and the other is a small-sized one) located in Pyung-Chang dong were selected to analyze the correlation and suggest the better display for the exhibition. The finding of the study is following. The exhibit space which spectators recognize is assumed diverse forms by an unique characteristics of exhibits and space and an arrangement of exhibitions and the path of flow of spectator who walking ahead have an huge effect on a spectators' behavior. In other words, spectators' watching patterns are affected by display of exhibitions and the path of flow. That is to say, the spectators' behavior and the concentration to watch exhibitions is decided by the exhibit form in the museum, and the quality of watching experience is depended on the spectators' relevant knowledge prior to exhibitions.

키워드 : 관람자행태, 전시특성, 전시공간, 상관성

Keywords : Spectator's behavior, Exhibit feature, Exhibit space, Correlation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현대의 박물관은 과거에 비해 그 형태나 내용 및 기능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성숙과 문화적 요구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소극적이며 폐쇄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과거 전시위주의 공간에서 전문화, 분산화 되어 일반대중을 끌어들이는 적극적인 자세로 변화되면서 박물관의 사회적인 개념은 강화되었다. 이는 박물관의 미술전시에 있어서 미술품 자체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관람객의 행태와 그들의 문화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장소라는 점에서 좀 더 폭 넓은 의미로 고취되고 있다.

미술관이 불특정 다수의 관람객이 동시관람을 하게 되는 장

소임을 고려할 때 관람객들에게 고정된 전시물과 적절한 공간 구성은 전시공간을 움직이는 동안 직접적이고 연속적인 시각적 접촉을 통해 원활한 유도동선을 만들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전시공간과 전시대상은 매우 밀접한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관람객 행동패턴에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전시대상과 전시공간, 단위전시실 그리고 관람시간에 따른 관람행태와 유동에 관한 상관관계를 도출하여 관람행태의 유형에 따라 전시공간과 전시대상의 상관성이 있음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미술관 전시의 대안을 찾아내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주요범위는 평창동 소재 미술관중 대규모미술관과 소규모미술관을 각각 한곳을 임의로 선정하여 사례조사·분석 대상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공간적 요소에 따른 구체적인 관람행태를 조사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 정희원, 국민대학교 테크노전문대학원 교수

** 정희원, 국민대학교 테크노전문대학원 실내디자인전공 석사과정

본 연구의 방법은 첫째, 미술관의 전시에 있어 관람자 행태에 의한 미술관 전시공간의 특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한 미술관 전시공간의 관람 행태론과 공간 구분적 행태론을 파악하고 둘째, 평창동 소재 미술관 두 곳을 중심으로 단위 전시실에 따른 관람 행태를 동선유형과 시간, 관람성격에 따라 분석하고 셋째, 분석된 데이터를 통해 관람 행태에 따른 전시대상과 전시공간의 특성과 상관성을 밝혀 그에 따른 결론을 도출해낸다.

2. 이론적 고찰

2.1. 미술관의 개념

미술관이라는 용어는 영어 'ART MUSEUM'의 한자어 번역이며, 일본인들에 의해 메이지 시대이후부터 지금까지 동북아시아 한자문화권에서 관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박물관중 미술관이라 함은 1991년 제정된 미술관법에 “미술관은 박물관으로서 회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전시하고 이들을 조사·연구하여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 문화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¹⁾라고 명시하고 있고 미술관에 대해서 ICOM²⁾에서는 “미술관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 문화적 가치가 있는 일련의 제 요소를 보존, 연구,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하며 특히 대중의 기쁨과 교육을 위해 전시하는 목적을 가지고 관리되는 항구적인 시설을 가리킨다.”라고 성격을 정의하였다.³⁾ 그러므로 미술관은 작가와 작품, 공간 그리고 관람자 등의 미술관의 여러 객체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미술관의 성격이 ICOM의 현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사회에 대한 공공성을 중시하여 일반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이 있는 공간이며 수집, 보존, 연구, 전시 등의 활동이외에 대중을 위한 사회교육활동의 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⁴⁾

미술관의 역할, 기능과 그 임무는 시대가 변하면서 새롭게 진화하고 있고 그 진화과정 속에서 각각의 미술관은 자신의 이미지를 지키고 미술관의 역사적 임무와 역할도 수행해야하며 또 새로운 고객의 유치와 이들의 문화적 만족감을 충족시켜야 하는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현대의 미술관은 그곳을 찾는 대중에게 흥미와 관심의 폭을 넓히는데 목적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2.2. 관람행태론

1) 미술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정의)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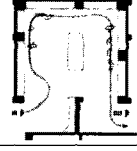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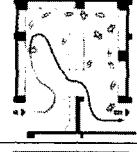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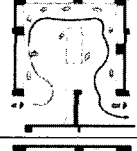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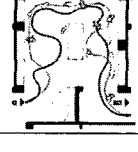
2) 국제박물관 협의회(ICOM: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

3) 이난영, 박물관학 입문, 삼화출판사, 1972, p.23.

4) 김주희, 미술관 전시에 있어 전시대상과 전시공간의 상관성연구, 한국 전시디자인학회, 2006, p.116.

미술관에서에서 관람객의 관람행태는 전시대상과 전시공간 등의 상황, 특성 그리고 타 관람객의 분포와 유동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전시공간의 구조에 의해 중앙 공간 출입형, 중심공간 순회형, 중심공간 출입순회형과 중심공간 부재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 분류된 4가지 형식은 관람자들에게 주 동선을 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관람객은 전시공간에 들어서면서 자신이 서있는 입구에서 전시구조 및 전시행태에 따라 전시환경을 파악하고 전시물에 접근·이동하는 방법으로서 암시된 관람동선을 선택하게 되며 이 과정에 있어서 타 관람객을 인지 후 관람속도를 결정하게 되고 이러한 환경이 설정되고 나면 관람이 시작된다. 전시물관람이 시작되고 나면 관람객은 또 다시 타 관람객을 인지하여 후속관람동선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 유형을 나누어보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관람행태인 통상관람과 선행관람자의 진행을 추월하는 추월관람, 선행관람자의 진행을 기다리는 대기관람, 선행 관람자로 인해 관람을 포기하는 형태인 관람포기, 원거리 관람을 하며 빠르게 전시실을 통과하는 형태인 통과관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의로 관람동선을 선택하여 관람하는 자유 관람으로 나누어진다. 이처럼 타 관람객과의 관계에 따라 관람행

<표 1> 관람유형 사례

관람유형	관람형태	
통상관람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관람객에게 나타나는 관람형태
추월관람		관람객이 갑자기 물리는 경우 주변 관람객 행동의 전파효과로 선행관람자의 진행을 추월하는 형태
대기관람		선행관람자의 진행을 기다렸다가 관람하는 형태
관람포기		관람을 포기하고 그냥 나가버리는 형태
통과관람		원거리 관람을 하며 전반적으로 대중 관람하는 형태
자유관람		임의로 관람동선을 선택하여 관람하는 형태

태에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타 관람객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Edward T. Hall⁵⁾과 R. Sommer⁶⁾의 연구가 있다. 이는 전시실내에서 관람객 상호간에도 관람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타 관람객과의 거리를 유지하려 하며 이러한 영역이 침범되었을 경우 관람행태에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여기서 전시환경에 따른 관람행태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관람객의 관람행태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알 수 있다.⁷⁾ 이와 같은 관람행태에 따른 6가지 관람유형⁸⁾은 반드시 각기 그 한 가지 유형만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 개개인의 문화적, 사회적 선호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사람들이 흔히 인간의 행태는 무한하다고 말하는 '무한한 반응의 수'가 그 이유에 있으며 전시실 안에서의 관람객의 숫자와 관람행태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관람객은 전시실내의 상황과 공간구조에 따라 <표 1>에서처럼 분류한 6가지 관람행태로 대응하는 관람이 진행된다.

2.3. 공간구문론적 행태론

관람객의 움직임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전시공간에 있어서 관람객 경험의 질을 높이기 위해 관람자의 행태를 관찰하는 것과 전시물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관람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구조는 공간적 형태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도구로서의 공간구문론을 들 수 있다.

공간구문론이란 공간 활용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 형태보다는 공간의 사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새로운 공간분석 기법으로 전시공간을 포함한 모든 공간은 사회적 논리성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이론은 물리적 공간구조의 분석을 통해 그 공간이 속한 사회, 문화적 속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각 공간과의 연계성 또는 상호작용을 파악하여 공간의 해석 및 디자인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공간 계획 기법이다.

미술관 관람자의 행태나 미술관 공간구성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알아보는 공간구조의 분석은 크게 인간의 공간 이용행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야에 바탕을 두고 있는 '가시성'과 '접근성'으로 나눌 수 있다. 한 공간에서 인간에게 '가시성'은 얼마만큼 어느 정도까지를 볼 수 있는가가 큰 변수로 작용하고 접근성은 가시성이 확보된 공간으로 갈 수 있는가가 변수로 작용하며, 이는 자신의 인지를 통해 다분히 직관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성과 개방성의 용이함은 방향전환의 횟수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되며 따라서 공간구조의 형태가 중요하게 작용된다.

5)Edward T. Hall, 숨겨진 차원, 한길사, 2002.

6)Robert Sommer, 개인의 공간, 기문당, 1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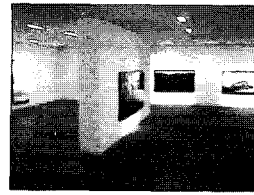
7)윤성규, 전시공간에서의 관람 흐름 유형변화에 따른 관람행태특성 분석, 대한건축학회, 통권208호, 2006, p.76.

8)모두 6가지로 구분된 관람유형은 이에 앞서 발표된 연구논문 7)에서 그 유효성이 논의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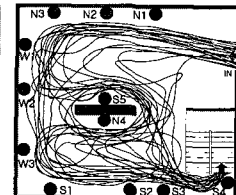
3. 미술관 전시의 관람행태 분석

관람자들의 관람패턴과 행동경향을 조사하기 위한 행태적 요인으로 관람유형, 관람시간, 관람성격 등의 요소들을 기본 데이터 요소로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람객의 관람행태를 조사·분석하였다.

3.1. 전시방식에 따른 관람동선 분석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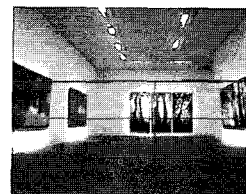
<그림 1> 1F 제1전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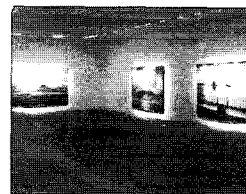
<그림 2> 1F 제1전시실 동선추적도

가나아트센터의 1층에 위치하고 있는 제1전시실은 입출구가 분리된 통과형 전시실

로 시각개방도가 넓게 인지되는 벽면 전시유형 중 벽면전시판 전시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전시실내 중앙부의 가벽으로 만들어진 벽면은 시각 개방도가 높은 전시공간의 어수선�함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독립케이스와 실물제현 전시물로 관람객들의 동선을 이원화 하는 역할을 한다. 대다수의 관람자들은 입구를 통해 들어와서 오른쪽 벽면에 있는 작품들을 감상하기 시작하여, 왼쪽으로 이동하였고 가운데 칸막이 시설에 있는 작품들을 감상한 후 뒤편으로 돌아가서 나머지 작품을 관람 하였다. 내부계단을 통해 올라가면 2층에 위치하고 있는 제2전시실 역시



<그림 3> 2F 제2전시실



<그림 4> 2F 제3전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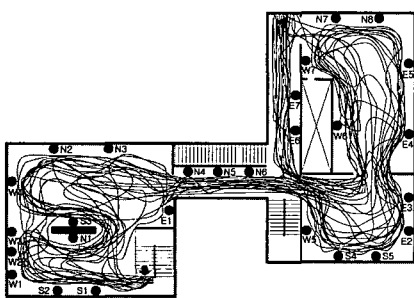
입출구가 분리된 통과형 전시로 벽면형 전시가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내부계단을 통해 들어온 관람자들은 제2전시실에서도 주로 오른쪽 방향으로 돌면서 그림을 감상한 후 큰 벽면을 따라 시각전시로 구성되어있는 복도를 통해 제3전시실로 이동했다. 제3전시실은 주입출구가 동일형인 선택형 전시였으나 대부분의 관람자들은 왼쪽방향으로 큰 벽면을 따라 전시물을 관람한 후 들어온 입구로 다시 나가 복도에 남은 작품을 관람하였다.

이 같은 제3전시실에서는 가벽으로 전시실을 두 개의 공간으로 구분하여 입구에서는 전시실 내부의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도록 구성되어 있어 관람객이 전시실 내부의 전시대상과 전시형태, 선행관람객의 인지가 불가능한 전시실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을 모르고 전시실에 진입한 대

9)전시방식에 따른 관람동선의 분석에 있어서 단체관람객과 개인관람객의 구분 없이 분석하기로 한다.

<표 2> 가나아트센터의 전시실별 관람유형

전시물	가나아트센터																												합계 (%)															
	제 1전시실														제 2전시실, 제 3전시실																													
	N1	N2	N3	N4	W1	W2	W3	S1	S2	S3	S4	S5	N1	N2	N3	N4	N5	N6	N7	N8	W1	W2	W3	W4	W5	W6	W7	S1	S2	S3	S4	S5	E1	E2	E3	E4	E5	E6	E7					
통상 관람	●	●			●																			●				●	●							●	●						20.5	
추월 관람						●																																						2.6
대기 관람				●								●																															5.1	
관람 포기													●		●				●	●	●							●								●								18
통과 관람		●					●	●	●	●	●			●									●	●		●	●						●						●				33.3	
자유 관람															●	●	●																●	●			●	●	●					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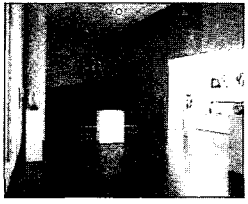


<그림 5> 2F 제2전시실, 제3전시실 동선추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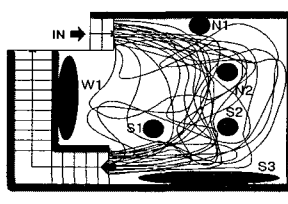
부분의 관람객의 관람 행태는 대부분 통과관람으로 나타났다. 관람유형중 가장 높게 나타난 통과관람자형의 동선은 다음 실로 갈수록 단거리 측에 위치한 벽면을 선택하여 관람하며, 출구 쪽

에서 원거리 측의 벽면 쪽으로는 접근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상설전시와 기획전위주의 전시가 이루어지는 가나아트센터의 관람유형은 <표 2>에서 보는바와 같이 통과관람이 33.3%로 가장 높았으며 추월관람은 2.6%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여기서 전시를 관람하는 대부분의 관람객은 전시실을 구성하는 벽체에 전시되어 있는 벽면전시물을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벽체는 동선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김중영 미술관의 1층에 위치하고 있는 제 1전시실은 입출구가 분리된 통과형 전시실로 입체 전시유형 중 독립진열대 전시와 벽면 전시유형중 돌출 진열대 전시, 돌출 진열장 전시로 구성되어 있었다. 대다수의 관람객들은 입구를 통해 들어와 입체 전시물의 사이공간을 지나쳐 아래층의 제 2전시실로 향하였다. 제 1전시실에서 관람자들의 관람행태는 관람포기와 통과관람, 자유관람과 통상관람으로 나뉘어 졌다. 제 2전시실은 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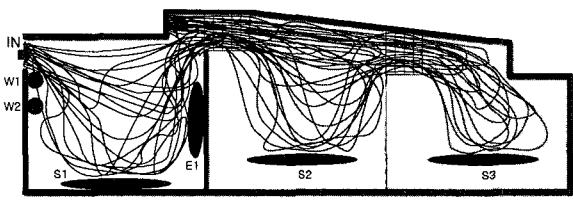
<그림 6> 1F 제1전시실



<그림 7> 1F 제1전시실 동선추적도



<그림 8> B1F 제2전시실, 제3전시실, 제4전시실



<그림 9> 김중영 미술관 B1F 제2전시실, 제3전시실, 제4전시실 동선추적도

형전시실이며 전시판을 입체적으로 구성하여 전시하는 방식으로 한 주제에 연관된 맥락적 내용물전시에 적합한 전시판 입체구성전시이고 대다수의 관람객들은 다음 전시실로의 강제 유도된 동선을 따라 관람하는 형식의 통과관람을 하였다. 제 3전시실과 제 4전시실에서는 입체물을 중심으로 하여 공간적으로 배치되는 방법인 아일랜드 전시로 대형입체전시가 구성되어 있었다. 원거리에서도 관람할 수 있는 대형 입체물을 위주로 한 전시는 관람객으로 하여금 41.6%의 통과관람을 하게 하였다. 연속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김중영 미술관을 살펴보면 가나아트

<표 3> 김중영미술관 전시실별 관람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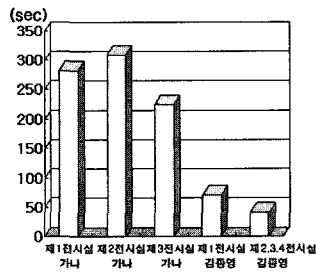
전시물	김중영미술관											합계 (%)	
	제 1전시실						제 2, 3, 4전시실						
	N1	N2	W1	S1	S2	S3	W1	W2	S1	S2	S3	E1	
통상관람	●						●						16.7
추월관람								●					16.7
대기관람													0
관람포기			●								●		16.7
통과관람				●	●				●	●		●	41.6
자유관람	●												8.3

센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던 관람유형과 같은 통과관람이라 하더라도 <그림 9>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이 입체전시의 경우 평면전시와 달리 벽면을 따라서 관람하기 보다는 아일랜드 입체전시를 기점으로 통과의 최단거리를 선택하여 관람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결론을 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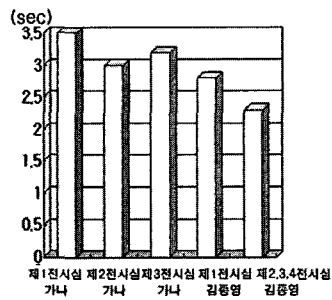
이처럼 전시공간의 전시유형과 표현방법 그리고 공간구성은 전시대상이 관람객에게 전해주는 의미전달의 질을 다르게 하며 관람객의 관람행태에 많은 영향을 준다.

3.2. 관람시간에 따른 분석

대다수의 관람객에게 있어서 시간이 경과하면서 관람하는 시간과 관람하는 길이, 전시물 앞에 멈추는 시간과 횟수는 현저하게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가장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제 1전시실에서는 입장하여 처음에는 진지한 자세로 관람을 하는 통상관람을 시작했다가 선행관람자에 의한 대기관람으로 연결되어졌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는 입구에서 출구로 완만하게 직진해버리는 경향이 강했으며 입구부분에서 실전체를 조망하는 원거리 관람을 하여 대중 관람하는 형태인 통과관람으로 이어졌고 곧 추월관람과 관람포기의 형태로 나타났다. 또한 벽면 전시보다 시각적으로 개방되어 있어 원거리 관람이 가능한 입체물의 전시의 경우 관람체류시간이 짧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시실의 조도가 낮을수록 전시작품에 다가가 장시간 체류하면서 관람하는 행태를 보였다. 관람



<그림 10> 각 전시실별 체류시간



<그림 11> 각 작품별 관람시간

객의 동선은 전시물에서 비교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이동하는 특징을 보였으며 이는 관람자의 행태는 전시물의 감상거리와 전시물의 크기는 비례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의미한다. 관람객들에게 인지되는 공간은 전시작품의 속성과 다양한 공간속에 의해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관람자의 관람행태는 전시물의 물리적 크기보다는 전시작품의 속성과 장르, 그리고 전시형태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전시밀도가 높을수록 선행관람자와 후속 관람자들의 동선이 많이 겹쳐지기 때문에 관람객의 관람능률은 저하되고 선택적 관람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전시작품별 관람시간의 변화

전시실	시간 (sec)	작품별 관람시간
가나아트센터	1	6, 4, 2
	2	6, 4, 2
	3	6, 4, 2
김종영미술관	1	6, 4, 2
	2,3,4	6, 4, 2
	2,3,4	6, 4, 2

3.3. 관람성격에 따른 분석

개인관람과 단체관람에 따른 조사결과 대부분 관람의 체류밀도와 체류시간 사이에는 반비례관계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전시실내의 관람체류밀도에 관람체류시간이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개인관람이 단체관람에 비해 각 작품 당 관람시간이 길어 전체적인 관람시간이 단체관람에 비해 길었고 이는 관람객이 전시실내에서 관람체류밀도에 따라 관람시간에 영향을 받아 관람체류밀도가 높은 전시실의 경우 관람체류시간이 줄어들며 관람체류밀도가 낮은 경우 체류시간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입장자의 증가와 관람체류시간과의 관계는 관람객이 새로 입장하는 후속 관람객들에 의해 관람체류시간이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환경에서 관람자 유동의 증가에 따라 관람시간이 짧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전시관람 동선에 있어서 선택적 동선을 택할 수 있는 전시실은 관람자 사이의 관람순서가 다양한 전시공간구조로 주관적이며 객체적인 지식전달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동선은 개인관람에 적합하다고 보여진다. 단체관람과 개인관람이 동시에 일어날 경우 개인관람객들은 선행관람객들에 의한 대기관람이 아닌 전체적으로 통과관람을 한 후 자신이 관심 있는 작품을 다시 감상하는 형태가 나타났다. 반면동선을 유도하는 강제동선형은 특정의 순서대

<표 5> 전시성격에 따른 관람유형

구분	전시실	가나아트센터	김종영미술관
단체 ¹⁾	제 1전시실	대기관람	추월관람
	제 2전시실	추월관람	통과관람
	제 3전시실	관람포기	통과관람
	제 4전시실	-	관람포기
개인	제 1전시실	통상관람	자유관람
	제 2전시실	통과관람	통상관람
	제 3전시실	자유관람	통과관람
	제 4전시실	-	통과관람

1)단체관람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5인 이상의 관람객으로 한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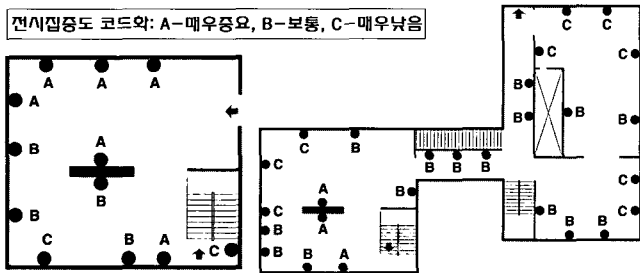
로 관람하도록 하는 전시공간으로 혼잡한 동선체계를 방지할 수 있는 단체관람에 적합하며 일종의 객관적이고 일괄적인 지식전달체계를 형성하는 주입식 교육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체관람의 경우에 있어서 개인관람형태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추월관람과 관람포기형태의 관람유형이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보아 관람체류밀도가 높으면 관람 능률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관람행태에 따른 전시대상과 전시공간의 상관성

4.1. 미술관 전시대상과 관람자의 상관성

전시실에서의 관람객의 행위들은 전시형태에 의하여 형성된다. 다시 말해 전시특성에 따라 각기 다르게 관람객의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람객의 움직임은 관람객이 전시공간을 인지한 후 관람동선과 관람속도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자의적인 판단과 전시실의 환경이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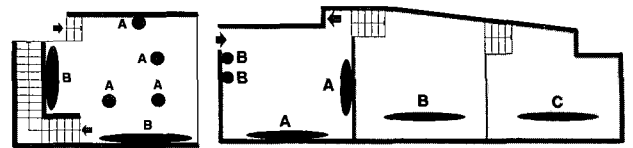
<그림 12> 가나아트센터의 관람자 전시집중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관람객들이 초반에는 진지하게 관람을 시작하나 전시실 출구에 가까이 갈수록 전시대상에 집중하지 않는 성향이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환경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전시실의 공간구성 중 출입구의 위치선정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전시대상의 중요도에 따라 전시순서나 위치의 알맞은 배치가 필요하다. 또한 관람자의 행태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소인 동선에 있어 중요도가 높은 작품은 강제동선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미술관전시 중 상설 전시의 경우는 그 전시특성상 관람객들이 전체적인 통과관람을 하며 원하는 부분의 전시만을 재 관람 하고자 하기 때문에 출입하는 관람객과의 겹치는 동선은 있을 수 있으나 여러 동선이 포개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간구성을 해야 한다. 또한 각각의 전시주제별, 부분별 심층관람으로 인해 수많은 세부 관람동선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강제동선과 자유 동선의 체계적인 혼합구성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것이다.

이처럼 관람객의 움직임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전시환경은 시각개방도, 전시대상의 특성, 전시배치방식, 전시밀도에 따라

알맞게 구성되어야 하고 관람객의 전시집중도¹¹⁾에 따라 적절하게 배치되어야 한다.

전시집중도 코드화: A-매우중요, B-보통, C-매우낮음



<그림 13> 김종영미술관 관람자 전시집중도

4.2. 시공간 전시의 상관성

현대의 4차원 시공간개념은 시간과 공간구조를 감상하기 위하여 관람객이 공간을 통과하면서 움직여야하고 이러한 행동을 바탕으로 관찰자의 움직임에 의한 지각적 경험에 따른 위치에 의하여 공간의 존재를 알게 된다는 것으로 시각적으로 느껴지는 운동성을 공간 속에 표현하는 것이다. 즉 경험중시의 공간을 뜻하는 것으로 관람객들의 행동경험을 통하여 시간개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던 동선추적도에서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속적으로 공간을 이동하기 때문에 관람자는 현재 어느 위치에 있고 또 어디를 향해 갈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¹²⁾ 시공간 전시에 있어서 전시실의 규모 또한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표 6>에

크기(㎡)	관람시간(min)
50㎡이하	10
50㎡~100㎡	12
100㎡~150㎡	14
150㎡이상	15

서는 전시공간의 크기에 따른 관람시간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 전시실의 규모에 따라 관람시간이 일정하게 증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시실의 전시벽면에 걸린 그림이 많을수록 각 전시물을 보는데 걸린 관람객의 평균시간이 적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으며 따라서 전시공간의 크기와 전시관람 시간과는 밀접한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관람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주요도가 높은 전시물의 배치 방식이었다. 전시정보전달의 가중치에 따라 주요성이 있는 전시물의 배치가 일정한 나열방식을 갖기 보다는 주요도가 높은 작품의 전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스쳐지나가면서 관람 할 수 있는 주요도가 낮은 작품과의 적절한 혼합배치가 꼭 필요하다. 전시실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처음 전시실에 입장해서 시야에 접하게 되는 전시대상과 관람객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가시도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로 사물이 크다고 멀리서 관

11) 전시집중도- 관람객이 전시대상에 집중할 수 있는 정도
전시집중도 코드화- 관람객이 전시대상에 집중하는 정도를 코드화 시켜 집중도의 정도를 나타냄.
12) 권소영, 시간개념을 적용한 공간 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대 석사논문, 2002, p.13.

람하는 것은 아니라는 조사결과 시각적인 가시영역은 공간의 적정규모 및 전시물 배열에 대한 제안에 있어 고려해야한다.

4.3. 전시성격과 관람특성의 상관성

(1) 시각전시

시각전시의 경우를 보면 평면전시의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벽의 형성으로 공간구획을 명확히 하여 순차적인 순서에 의해 관람을 하게 유도할 수 있으며 적극적인 전시형태로 전시주제별 내용을 구분하고 관련주제 사이의 영역을 확연히 구분할 수 있다. 시각전시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주로 평면작품전시에 사용한다. 평면작품전시의 경우 주로 큰 벽체에 의해 관람객들의 동선유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바닥, 벽, 천장의 공간구성요소 중 특히 벽이라는 요소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시각전시에 있어서 나타나는 관람행태는 시각적 개방도가 낮기 때문에 작품과 관람자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관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작품의 주요도에 따라 관람객이 전시물에 접근해 자세히 살펴보는 근거리 관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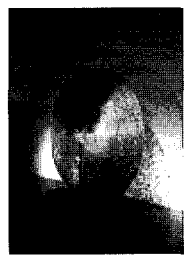

을 하는 성향을 보이기도 했다. 벽면전시에 비해 시각적 개방도가 높은 천장면 전시와 바닥전시는 전시물의 성격에 따라 동선을 유도 하는 성향을 띠는 경우도 있었으며 벽면전시에 비해 관람객의 작품에 대한 접근 가능성과 관람객의 호기심의 자극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시각전시는 관람자로 하여금 강제동선의 경향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전시주제별 영역을 인지하기 쉬운 특성이 있다.

(2) 입체전시

입체전시는 시각전시과 대조적으로 공간구획이 명확하지 못하고 시각적으로 보다 더 개방되어 있어 주제별 영역을 인지하기 어려우나 관람자들은 다양한 관람동선 선택의 기회를 갖게 된다. 전시물을 노출한 채 전시할 수 있는 기본 형식으로서의 입체전시는 양감과 부피를 가지고 있어 사방에서 관람이 가능하며 전시실에 공간적으로 배치되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전시의 성격에 따라 모든 방향에서 관람하기 위해 관람객이 전시물 사이를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입체전시는 전시 특성상 전시물 사이를 오가며 대부분 자유동선을 택하기 때문에

<표 7> 전시특성과 관람특성의 상관성

구분	전시유형	전시방법	전시성격	관람특성										
시각전시		벽	벽면전시관전시	시각적 개방도가 높다.										
			벽면진열장 전시		시각적개방도가 낮다.									
			알코브벽 전시			다양한 관람동선 선택의 기회를 갖는다.								
			알코브 진열장 전시				전시주제별 영역을 인지하기 어렵다.							
			돌출진열대 전시					동선유도를 할 수 있다						
	돌출진열장 전시	이동패턴이 수많은 세부동선으로 인해 유사한 경로를 발견하기 어렵다.												
			천장						천장면 전시	동선이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는 등의 전시실의 협소성을 해결할 수 있다.				
									달아매기 전시		사면에서 관찰이 가능하다.			
												바닥	바닥평면전시	관람객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
													가라앉은 바닥전시	
경사진 바닥면전시				작품과 관람자 사이의 근거리 관람.										
바닥면의 입체복합전시	관람객의 전시물에 대한 접근 가능성.													
입체전시					입체	독립진열대전시			관람객의 호기심 자극					
						독립진열장전시	관람객의 직접참여							
						전시판 입체구성전시								
		다중면 전시												
		아일랜드전시												
		하모니카전시												
		파노라마전시												
		디오라마전시												
		복원전경연출전시												
	영상전시			매체이용		정지단일영상전시								
정지다원영상전시														
동적단일영상전시														
공간이용			동적다원영상전시											
			입체영상전시(홀로그램)											
관객참여	입체영상전시(Virtual Reality) (Magic Vision)													

이동패턴이 수많은 세부동선으로 인해 유사한 경로를 발견하기 어렵다. 반면 전시실에서 관람객의 집중도에 있어서 각개의 입체물로 전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람객의 집중도를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관람객의 행동패턴을 조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시대상의 특성과 개인의 관람취향에 따라 멀리서 관찰하는 원거리 관람과 전시물에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하게 관찰하는 등의 근거리 관람 형태가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3) 영상전시

영상전시에 있어서 전시 방법에 따라 크게 매체이용기법과 공간이용기법, 그리고 관객참여 기법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3가지의 전시 방법은 모두 원거리 관람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로 다른 작품과는 격리시켜 전시 하는 영상전시는 관람객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내부공간으로 관람객을 끌어들이고 관람객으로 하여금 전시대상에 다가가서 직접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하였다. 이는 관람자로 하여금 직접적인 참여를 함으로써 전시대상을 가까이 하여 친근하게 느끼도록 할 수 있었으며 전시의 관람에 있어서 집중도를 높이는 효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영상전시 관람에 있어서 관람자가 주제적인 관람을 하기 위해서는 작품에 대한 적절한 사전지식이 필요하다고 조사되었다. 이는 관람자의 사전지식의 정도에 따라 전시의 질을 다르게 느낄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5. 결론

이상으로 본 논문에서 전시대상과 전시공간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본 관람자 행태에 의한 미술관 전시공간의 특성에 주요점을 두고 관람의 행태를 추적, 관찰 조사한 것으로 조사결과 관람객들에게 인지되는 전시공간은 전시작품의 속성과 전시대상이 속해 있는 다양한 공간속에 의해 다르게 나타나며 관람자의 관람행태는 전시작품의 배치방식과 선행관람자에 의한 동선에 의해 전시 관람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아보았다. 관람행태에 있어서 전시밀도가 높을수록 선행관람자와 후속 관람자들의 동선이 많이 겹치기 때문에 관람객의 관람률은 저하되고 추월관람과 관람포기, 통과관람 등의 선택적 관람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으며, 미술관은 전시공간과 전시대상, 전시대상과 관람객, 관람객과 관람객, 관람객과 전시공간의 상호간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기능이 공존하는 공간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살펴보았듯이 관람객들에게 있어서 관람 유형은 <표 1>에서 살펴보았듯이 통상관람과 추월관람, 대기관람, 관람포기, 통과관람, 자유 관람의 6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졌다.

첫째, 미술관의 전시방식에 따라 나타나는 관람의 행태는 관람객들이 전시실 출구에 가까이 감에 따라 전시대상에 집중하지 않는 성향이 나타나는 것처럼 전시형태에 의하여 형성된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시공간 전시의 상관성에 있어서 전시실의 규모와 관람 시간, 그리고 작품의 크기와 관람거리는 밀접한 상관성이 없음을 알아보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관람 능률이 떨어지는 것은 주요도가 높고 낮은 작품의 적절한 혼합구성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셋째, 전시성격과 관람특성은 평면회화 위주의 시각전시에 있어서 벽체의 형성은 전시 면을 구획하는 기능을 하고 동시에 동선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며 시각적 개방도를 줄여 작품관람에 집중도를 높여줄 수 있다. 그리고 전시실 공간의 협소성을 해결하기 위해 천장전시를 사용하기도 한다. 입체전시는 양감과 부피를 가지고 있어 전시실에 공간적으로 배치되어지며 관람객들이 전시물사이를 지날 수 있게 설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관람객이 직접참여 하여야 하는 공간의 영상전시에 있어서 관람자체험의 질은 사전지식에 따라 전달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관람자행태에 의한 미술관 전시공간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전시공간과 전시공간의 다양한 공간표현 양상을 이해하여 보다 나은 전시를 기획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정재훈, 박물관에서 관람자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2004.
2. 최원령, 미술관 전시공간에서의 관람객 행동에 관한연구, 산업기술종합연구소, 1986.
3. 황유경, 미술관 전시공간의 관람자 행태특성에 관한 연구, 홍대 석사논문, 2002.
4. 김연지, 미술관에서 설치미술품 전시공간분석에 관한 연구, 원광대 석사논문, 2002.
5. 박무호, 박물관 전시공간구조와 관람분포의 상관성 검토,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통권 8호, 2005.
6. 최준혁, 박물관 전시동선의 유형과 요인에 관한 기초적 연구, 대한건축학회, 2004.
7. 권정란, 어린이 박물관의 전시설계를 위한 관람특성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2.
8. 윤성규, 전시공간에서의 관람 흐름 유형변화에 따른 관람행태특성 분석, 대한건축학회, 2006.
9. 임채진, 전시배치방식 유형과 관람행동 상관성 분석,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통권 55호, 2006.
10. 김주희, 미술관 전시에 있어 전시대상과 전시공간의 상관성 연구, 한국전시디자인학회, 2006.
11. 이난영, 박물관학 입문, 삼화출판사, 1972
12. 권소영, 시간개념을 적용한 공간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2002

<접수 : 2006. 6. 30>